



네 팔

내전 종식과 SAFTA 체결로 경제전망 밝아져

최근 네팔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정치불안 요소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최빈국 네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있다. 지난 1월 네팔이 포함되어 있는 SAARC¹⁾ 가맹국들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서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²⁾에 서명하면서 교역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다. 최빈개도국으로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네팔 경제에는 SAFTA 체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의 안정, 공산반군과의 종전협정 체결

지난 2005년 2월 가넨드라 국왕은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이에 대해 UN, 미국, 영국 등은 가넨드라의 조치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하였고, 국내 정당들도 정부해산 조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네팔의 정치·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도 강한 우려와 비난의 뜻을 표명하였고, 원조국들이 네팔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네팔 예산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네팔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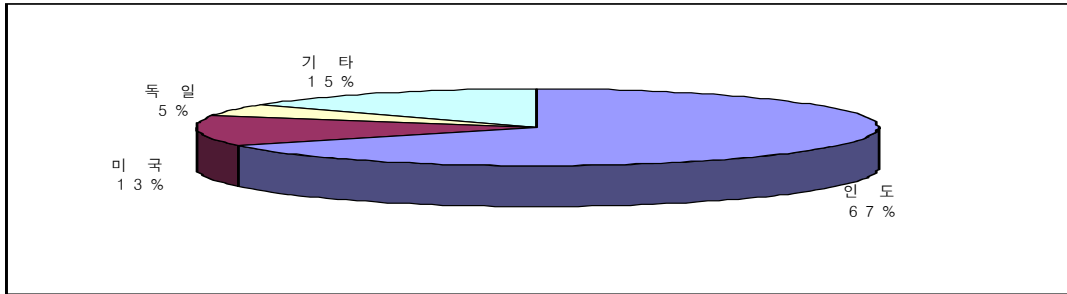
그러나 2006년 4월 가넨드라 국왕은 계속되는 파업과 민주화요구 시위에 결국 권력이 양을 선언하고, 4월 27일 카이랄라가 새 총리로 임명되면서 14개월 이상 혼미양상을 거듭해 온 네팔 정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또한, 네팔 의회는 4월 말 제헌의회 선거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후, 본격적으로

1) 1985년에 설립된 서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로 본부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으며, 가맹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임.

2) 2006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회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SAARC 국가들임. 역내 인구는 14억 명(전 세계 인구의 1/4), 역내 GDP 규모는 8,700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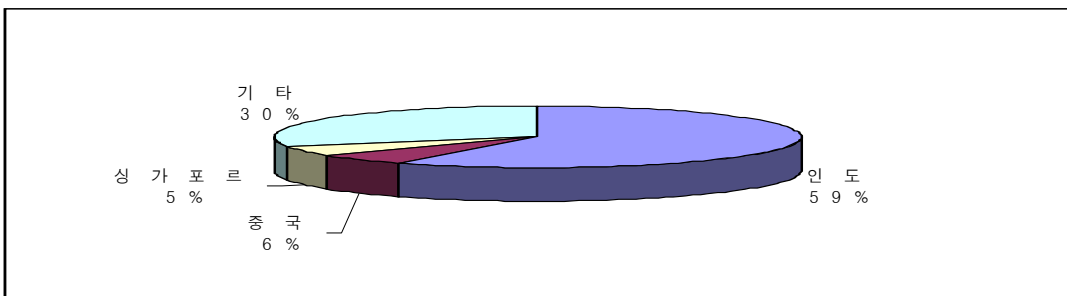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수출국(2005년도 기준)



<그림 2>

주요 수입국(2005년도 기준)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

Maoist³⁾와의 평화협상을 시작하였다. 순조로운 평화협상과 내각회담을 거쳐 6월 16일, 결국 카이랄라 총리와 공산반군 지도자 프라찬드라는 무장투쟁이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만나 무장투쟁을 종식시키고, 임시정부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빠르게 이루어진 정치안정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네팔의 최빈국 탈피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AFTA가 네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번 SAFTA는 네팔 경제성장에 중

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네팔 경제의 높은 대 인도의존도 때문이다. 네팔의 대 인도 수출비중은 67%(2005년도 기준)이고, 대 인도 수입비중은 59%(2005년도 기준)로, 인도는 네팔의 첫 번째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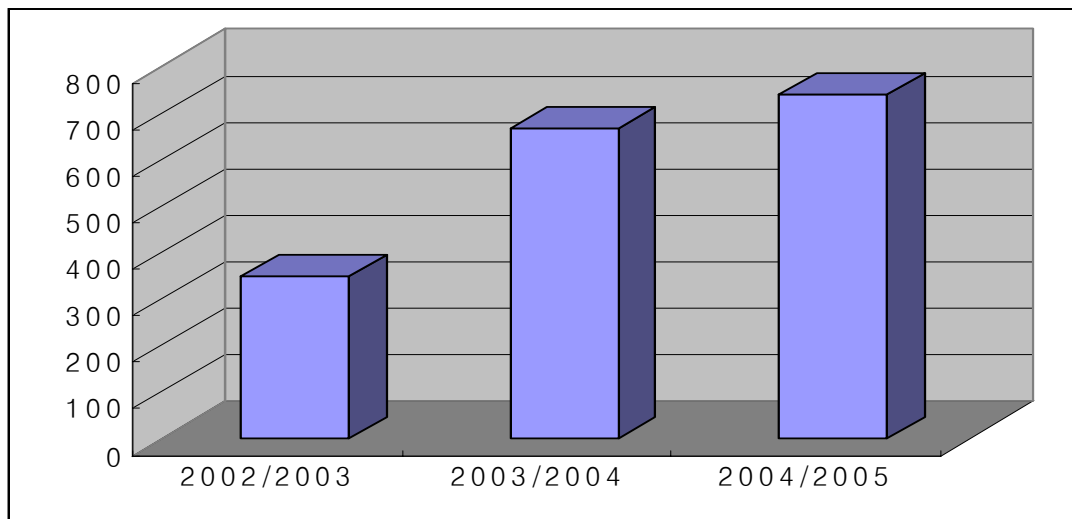
특히 인도로부터의 수입품 중 네팔 전체 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로, 최근 크게 상승하고 있는 네팔의 물가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가격의 하락은 다른 생산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관계수로를 이용한 농업분

3) 중국의 마오쩌둥이 주창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1966년에 조직되어 1996년 인민전쟁(People's War)을 선포함. 초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인민전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공산반군은 네팔의 3분의 2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4) 2005/06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이 9%로 예상됨.

〈그림 3〉 대 인도 수출액 추이



자료: 인도통계청.

야⁵⁾와 같은 기간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의 대 인도수출은 2005년에 7억 4,300만 달러로, 2003년 3억 5,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로 증가하였고, 네팔의 교역규모도 2002년 19억 8,700만 달러에서 2004년 26억 2,400만 달러로 30%이상 증가하는 등 대 인도 수출 및 교역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과다한 예외 품목과 낮은 개방수준의 한계가 있으나, SAFTA 체결로 네팔은 인도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23일 Daka에서 열린 서남아시아 상공장관회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SAFTA 역내 거래상품에 대해 5%이상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역내관세 인하 합

의로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등 최빈개도국 회원국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의 Singh 총리는 향후 2년 내 역내무역이 현재의 70억 달러 수준에서 14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역내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최빈개도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과 최빈개도국(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으로 나뉘 각각 차별화된 관세 인하율과 관세 인하시점을 설정하였다. 네팔은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로부터 향후 4년간 SAFTA로 인해 감소된 관세수입 전액을 보장받게 되며, 이들 세 나라로부터 무역, 조세, 관세 등 10개 분야에

5) 네팔은 농업의 비중이 아직도 큰 국가로, 네팔의 농업은 국민총생산의 38.3%(2005년도 기준)을 차지함.

대한 기술지원을 보장 받게 된다.

SAFTA 효과의 한계와 네팔의 경제전망

다음과 같은 점에서 SAFTA가 네팔에 미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불일치, SAFTA의 제한적인 효과는 향후 인도시장 진출을 통한 네팔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업⁶⁾이지만, 네팔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섬유산업이다. 이러한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불일치는 수출증가에 따른 경제발전의 과급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수출이 네팔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SAFTA를 통한 대 인도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 SAFTA의 성공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회원국간 역내교역이 회원국들의 전체 교역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SAFTA의 낮은 개방수준과 과도한 예외품목 설정 등으로 인해 SAFTA의 교역규모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부 역내교역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탈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SAFTA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팔 임시정부에 대한 합의로 어느 정도

정치안정이 회복되었으나, 아직 공산반군의 무장해제 시점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양측의 합의문에 내년에 실시될 선거 기간에 정부군과 반군의 무기를 감시하도록 유엔에 요청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반군의 무장해제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정부가 '선(先) 무장해제'를 요구한데 대해 반군이 '총선 이전 불가'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양측 갈등의 해소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랜 반군과의 대치 상황, 가넨드라 국왕의 정부해산에 따른 정국 불안 등으로 경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네팔의 주요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 수입이 급감하였는데, 지난해 2월 네팔 관광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 수는 1만 4,000명으로, 2004년 같은 기간보다 43%나 줄었고, 지난해 3월 입국자도 35% 감소했다. 관광수입의 원천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상당부분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국왕의 비상선포 이후 잦은 정전으로 교통·통신 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가 안보와 개발 등의 이유로 국가부채는 크게 불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면서 올해 6월 중순 네팔 재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공산반군과의 대치로 발생한 매년 2억 달러의 과도한 국방예산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⁷⁾

최근 네팔의 정치안정과 SAFTA 체결은

6) 2005년도 기준, 전체 국민 총생산의 38.3%를 차지함.

7) 2005년 국가예산은 총 18억 달러였음.

네팔의 경제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네팔의 최빈국 탈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네팔 정부가 반군과의 협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공고히 하

고, SAFTA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와의 교역을 확대시켜 SAFTA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면 네팔의 경제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현 규】